경찰 총기 기강 구멍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제328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846.63 (+16.82)
코스닥 645.43 (+32.10)

금리(국고채 3년) 1.69 (−0.02)
환율(원·달러) 1194.00 (−7.80)

정수현 등 배임의혹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서림개발 땅(파란색)과 현대엠코 소유 토지(노란색).

정의선 개인회사 8억원 지원… 현대엠코 정수현 전 사장 등 배임 의혹
'묘목심는다' 며 자사 토지 두고 바로 옆 정의선 땅 빌리고 임대료 지급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현 현대엔지니어링)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오른쪽 사진**)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주)에 8억여원을 지원한 것(**본지 2월 23일자 보도 참조**)과 관련해 엠코의 당시 대표이사 등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엠코가 서림개발에 돈을 준 명분이 '조경수 묘목 식재용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데, 해당 토지 인근에 엠코가 예전부터 소유해온 대규모 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엠코가 실제 필요도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핑계로 오너일가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 운영비를 제공해온 셈이다.

서림개발은 정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다.

서림개발은 팔당호 주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대에 확인된 것만 30여만평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 인사는 "이것이 사실이면 엠코가 서림개발과 토지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키로 결정할 당시 엠코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5억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엠코가 서림개발에 토지 임대료를 지급한 기간은 2009~2014년으로 이 기간 엠코 대표이사는 조위건, 김창희, 정수현(**왼쪽 사진**), 손효원 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현대차그룹을 떠났고 정씨만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 사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엠코가 조경수용 묘목 식재를 위해 토지를 빌린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조경수 조성 작업은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성목(다 큰 나무)를 그때그때 사와서 심는 게 통례라는 것이다.

설사 현대엠코만 특이하게 묘목을 길러 조경수를 조달한다고 해도, 인근에 자기 소유 땅을 놔두고 '묘목을 심기 위해' 굳이 인근 토지를 빌린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대엠코는 본지가 확인한 것만 해도 퇴촌면 관음리에 임야 2734㎡(약 827평)와 잡종지 2161㎡(약 654평)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서림개발 소유 땅과 바로 인접해 있다.

이 중 임야는 서림개발 사무실을 둘러싼 대규모 부지 인근에, 잡종지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별장으로 알려진 건물의 주변에 있다.

엠코가 이들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4년이다.

반면 엠코가 서림개발 땅을 임대한 시기는 2009년부터다.

정 부회장이 서림개발을 인수한 시점도 2009년이다.

현대엠코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림개발에 이 땅을 빌리는 대가로 매년 1억8000만~1500만원씩 총 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수의계약을 통한 현금 지급 방식이다.

서림개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대목적은 2009년 당시에는 '조경사업용 묘목 등 식재 목적 토지 장기임대'라고 돼 있다가, 그 후 단순히 '토지 임대', '기타 부동산 임대' 등으로 변경됐다.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니, 엠코가 서림개발에서 빌렸다는 토지에는 잣나무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다.

현대엠코 소유 임야 일대에는 다 자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묘목은 없었다.

법조계 인사들에게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니, 현대엠코 대표이사 등이 자사 땅을 두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오너일가의 땅을 빌려 임대료를 지불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경법에 의해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 재경 부장판사는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이유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계열사에 회삿돈을 줬다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이 사례에서 해당 토지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지난 2007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 부회장 후계구도 구축 작업에 제동이 걸린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간 밀어주기와 음성적인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몽구-정의선 오너일가의 재산 부풀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과 엠코의 현신인 현대엔지니어링, 정 사장이 재직 중인 현대건설 측의 의견이나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어디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시 엠코 관계자들이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모두 회사를 떠나 지금으로써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지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물어보는 게 낫지 않나. 우리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만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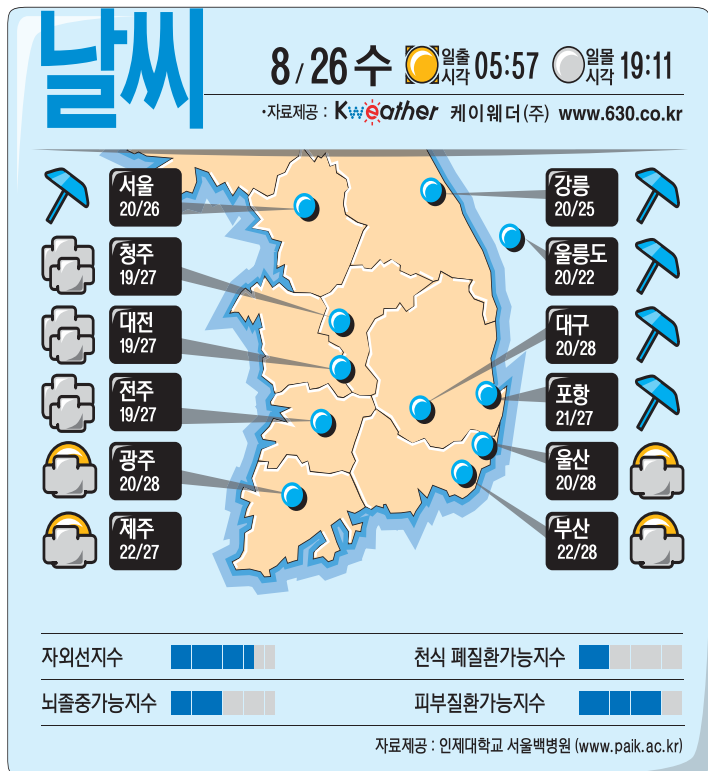
날씨

8/26 수 일출시각 05:57 일몰시각 19: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지역	기온
서울	20/26
청주	19/27
대전	19/27
전주	19/27
광주	20/28
제주	22/27
강릉	20/25
울릉도	20/22
대구	20/28
포항	21/27
울산	20/28
부산	22/28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정치

▲ 북한이 준전시상태 상태에서 **잠수함** 수십척을 전개하는 등 예상치 못한 군사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준전시상태의 북한군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전쟁계획을 재검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남북이 당국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가장 먼저 다뤄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원만히 풀려야 추후 남북 관계개선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남한과 북한은 25일 12시를 기준으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22~25일 이어진 **고위급 접촉** 이후 도출해 낸 6항목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따른 결과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다음 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 무산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을 대신해 최룡해 당 비서를 전승절 행사에 보내기로 했다.

▲ 북한이 '남북 2+2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애초 정부가 요구했던 '사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

소설가 **박철주**씨가 법원과 수사기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에 대해 25일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KBS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 '후지산'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드라마 제작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선뜻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민법에서 사라진다. 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조문 1057곳을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의 소장 등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전문의 두 명이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시가 코엑스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6개 철도의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신고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44) 원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제

▲

중국 **인민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또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도 0.5%p 내렸다. 증시 폭락이 연일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부양책에 나선것을 풀이된다.

▲ 연일 폭락하는 증시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제왕적 권력을 구축한 시진핑 중국 지도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과 지도력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5일 정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1500억 위안(약 28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했다.

▲ 친중파와 친일파가 대립하고 있는 **대만**에서 마잉주 총통이 미국 워싱턴타임스(WT) 기고를 통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대만 영토라고 주장했다. 친일파인 리덩후이 전 총통의 '일본 땅' 발언에 대한 반격이다.

▲ 이란에 러시아 **미사일방어시스템** S-300을 도입하는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경제

▲ 중국발 블랙먼데이 파동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촉발한 글로벌 증시 폭락의 여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2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의 정규직 직원은 줄고 계약직 직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들의 고용 성장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내은행들이 올 2분기 가계에 빌려준 돈이 11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1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서울 강남권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주변 생활편의시설과 입지조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열려라! 금강산 25일 오후 서울 연지동 현대아산 본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강산·개성관광 사업권자인 현대그룹 계열 현대아산은 이날 남북한이 판문점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한 데 대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

▲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뜻에 따라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장병들에 대해서 신입사원 **채용** 시 우선적으로 뽑기로 했다. 사측은 관련 당국과의 협조를 거쳐 이와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SK하이닉스가 최첨단 신규 공장 준공과 46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밝혔다.

▲ 마크 코모 한국지엠 부사장은 쉐보레 **트랙스 디젤** 모델의 예상 판매량을 월 500대 수준으로 예상했다.

▲ 내달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특허권 갱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매출 대비 0.05%, 중소·중견 기업 0.01%) 인상 등을 통해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등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 감사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출석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월의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는 광복 후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는 서민의 삶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 **남성화장품**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구매했던 남성들이 최근 비비크림 등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소비를 확장하고 있다. 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올인원 화장품을 찾는 남성도 늘고 있다.

北 잠수함 충격… 美 한반도 전쟁계획 재검토

펜타곤 수차례 긴급논의
한국에 위기수준 완화 요구
B-52 훈련비행 취소 검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 중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준전시상태에서 잠수함 수십척을 전개하는 등 예상치 못한 군사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준전시상태의 북한군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전쟁계획을 재검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위기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북한은 포격 도발 당일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위기수준을 높여 주변국을 놀라게 했다. 북한이 이번에 벌인 도발의 진짜 상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지 않았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미국 CNN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주 북한의 휴전선 전력 증강과 군사력 동원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본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미군 최고사령관들은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갑작스런 징후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이 월요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도 북한의 전력 증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기간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전력을 심각하게 보고 내부적으로 한반도 전쟁계획을 두고 수차례 긴급 논의를 가지고, 한국군과도 논의했다. 미군 사령관들과 군사전략가 수준의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어떤 종류의 미군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 미군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한국에는 위기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미군은 위성을 비롯한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력 평가에 나섰다. 북한은 준전시상태에서 대공 레이더를 가동시키고, 비무장지대(DMZ) 가까이 포병을 전개했다. 후방에서는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등 전술미사일을 전투 배치했다. 바다로는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을 전개했다.

잠수함 등 북한 해군의 움직임은 미군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관료는 "전례가 없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과거 북한 해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CNN은 미군이 현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연합 훈련에서 B-52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인 상황에서 50여 척에 달하는, 사실상 기동 가능한 모든 잠수함 전력을 전개해 한미 양국을 놀라게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한 이후 종적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전략잠수함에서 운용하는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출발해 이동하면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여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대비책은 실제로는 무력했던 셈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평온 찾은 휴전선… 北 준전시상태 해제

합의사항 실제 이행 첫 사례

남한과 북한은 25일 12시를 기준으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고위급 접촉 이후 도출해 낸 6항목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따른 결과다.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 낮 12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며 "우리 군도 같은 시각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확성기 방송은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2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북한군에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11개 지역에서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군은 고위급접촉이 타결된 이날 새벽에 이어 정오 이전까지 15일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북한군은 이후 최전방 지역에 확성기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포병전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강했다. 특수전부대 요원과 이를 지도할 총정치국 소속 정치지도원을 확성기 타격 명령이 내려진 최전방 부대에 파견했다. 그리고 이날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함께 5일 만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군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오는 28일까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정원 기자 garden@

이산가족 상봉이 관계개선 좌우

남북이 당국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가장 먼저 다뤄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원만히 풀려야 추후 남북 관계개선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은 6항목으로 이뤄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내놨다. 공동 보도문의 첫 번째 합의 사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이다. 남북은 관계 개선을 위해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개최될 남북 당국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이 우선적인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9000여 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6만6000여 명으로 절반가량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한 이후 2000년부터 본격화해 매년 한 차례씩 열렸다. 그러나 2010년 상봉 이후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가 열린 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작년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북간에는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은 물론이고 북핵 같은 난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또 한 차례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

/윤정원 기자

北 김정은, 中 전승절 불참
박 대통령, 열병식 참석키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다음 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 무산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을 대신해 최룡해 당 비서를 전승절 행사에 보내기로 했다. 최 비서는 불편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됐다.

북중관계는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장성택 처형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했지만 양자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북남 사이에서 때에 따라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드는 식으로 자기 안속을 차리는 외세"라며 중국을 우회 비난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서도 양측은 상대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의 자제 요청에 북한은 거부감을 나타냈고 중국 언론은 정부를 대신해 북중 관계 악화를 경고했다.

열병식 준비하는 중국 여군들. /연합뉴스

반면 열병식 참가 문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던 박 대통령은 결국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정상회담 발표로 어느 정도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 위기에서 중국은 고위급 회담 타결을 측면 지원했다. 남북간 군사충돌 위험이 고조되던 지난 21일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는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일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측의 눈치를 봤다는 게 일본 내외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윤정원 기자

구멍 뚫린 경찰 총기 기강 … 동료에게 오발

은평署 검문소 근무 경찰
옆에 있던 의경에게 격발

경찰의 총기 기강에 구멍이 뚫렸다.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것이다.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가 경찰 조끼에 휴대한 38구경 권총을 조끼에서 꺼내다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옆에 있던 박 모 상경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관 1명과 의경 4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은 첫발은 비어 있고, 두 번째 칸이 공포탄, 셋째 칸은 실탄의 순서로 되어 있다.

사건을 조사중인 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박 경위가 당연히 노리쇠가 빈칸에 맞춰져 있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만약 박 경위가 고의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면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총기안전장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안전관리 여부 등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6일에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소속 김 모 일경의 K-2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됐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진 않지만, 한미연합훈련기간 지급받았던 소총에 실탄이 장전돼 있었다. 당시 총구가 하늘을 향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지나는 곳인데다 주변에 사무실도 많아 자칫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책임자인 김 모 경감은 사고 상황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총에 장전됐던 실탄의 출처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게 견책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사고에 이어 총기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 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건물 앞에서 헌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리허설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뉴스

中 전승절 무대 '중러' vs '미일'

박근혜·푸틴 대통령 참석
오바마·아베 총리는 불참

중국의 전승절을 무대로 '중러 대 미일' 대립을 주제로 한 역사 드라마가 펼쳐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정부대표, 국제기구 지도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0여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정부 고위급 대표 19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의 이름이 담겼다.

이날 발표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불참이 공식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국대사관 사절을 보내기로 했다. 최소한의 성의 표시에 그친 셈이다.

미국과 가까운 서방 지도자들 역시 불참이 공식 확인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장관급 인사를 정부 대표로 파견하지만 독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사관 인사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미국의 맹방인 일본과 영국은 정부 인사 대신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국가 정상급 참석 인사 대부분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에서 온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나라들이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열병식에는 17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14개 국가가 군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쿠바,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 11개 국가가 열병식에 75명의 군인을 파견한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 6개 국가는 7명 안팎의 군 대표단을 파견한다. 모두 약 1000여명의 군인이 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이란 등 14개 국가는 군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中 인민은행, 증시에 27조원 더 쏟아 붓는다

8월에만 100조원 투입
쿠데타설 등 루머 횡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5일 정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500억 위안(약 28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일환으로 7일 만기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 방식으로 이 자금을 공급했다. 시장에 순공급되는 금액은 300억 위안이다. 이날 만기를 맞아 회수되는 시중 자금이 1200억 위안이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자금 유출에다 증시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인민은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1년 7개월 만에 1200억 위안의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20일에도 같은 규모의 유동성을 내보냈다. 이날은 300억 위안이 더 늘어났다.

인민은행이 증시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한 역RP 자금 규모는 8월 한달 동안만 5400억 위안(약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 인민은행은 1500억 위안의 중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중국 상하이 지수는 3000선이 무너지며 전날에 이어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 증시에서는 쿠데타설을 비롯한 각종 루머가 번지고 있다. 중국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톈진항 폭발 사고가 쿠데타 시도로 인해 발생했다며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체포설이 나돌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송병형 기자

팀 쿡 '편지' 애플 구했지만 '공시 위반' 논란

美 SEC, 위반 여부 검토

미국 증시가 중국발 악재로 '검은 월요일'을 맞은 24일(현지시간) 팀 쿡(사진)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편지 한 통이 애플을 나락에서 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쿡 CEO의 편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쿡 CEO는 이날 미국 CNBC방송 프로그램 '매드 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에게 보낸 이메일 편지에서 "중국 시장 실적내용을 매일 받아보고 있다"며 "지난 2개월간 애플은 중국에서 강하게 성장했다. 현재까지 나온 3분기 실적만 놓고보면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폰이 중국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도 지난 2주간 최고 실적을 올리는 등 7~8월 중국에서 견실한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편지가 공개되자 개장초 전 거래일 대비 10% 넘게 곤두박질치고 있던 애플의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해 2.5%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애플 주가는 최근 한달 동안 20% 넘게 폭락했다. 이 같은 하락세도 쿡 CEO의 편지로 진정 국면을 맞았다.

쿡 CEO의 편지는 며칠전 크레이머가 보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크레이머는 쿡 CEO에게 "중국 시장과 관련된 공포와 우려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 중국 현지 아이폰 판매 실적에 대해 설명 해줄 의향이 있나"고 물었다.

하지만 쿡 CEO의 편지는 특정인에게 먼저 기업정보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SEC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는 SEC 공시 규정을 피해 갈 수 있지만 크레이머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추천종목을 제공하고 있고 이중에는 애플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SEC는 이번 이메일 편지 건의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송병형 기자

롯데가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겠습니다

롯데가 과감한 혁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롯데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롯데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롯데그룹

첫째, 기업 공개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호텔롯데의 국내 상장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소유구조가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호텔롯데는 상장 이전이라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사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상장회사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조속히 실행하겠습니다

- 그룹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태스크포스팀과 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현재 416개인 순환출자고리의 80% 이상을 연말까지 해소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모든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채용·사회공헌·창조경제 실현 등 국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2018년까지 2만 4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유통 실크로드를 개척하겠습니다.

LOTTE

"명예훼손은 주관적인 평가… 국가개입 안돼"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글 제3자 규제 법안 추진에 법학자, 권력 남용 우려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행정기관과 제3자에 의해 규제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상위법 충돌 논리 불성립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형법이 반의사불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명예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3자나 행정기관이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되고 제3자가 개입된 영역은 또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2006년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3자의 의한 고발이 남발된 것. 이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이 불러온 병폐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 취지의 개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작권법은 제3자의 고발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려는 법파라치를 양산하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심의 모두 당사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작권자의 의도적인 유통이 제3자 입장에선 침해로 보여 고발이 가능한 구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되레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사법·행정기관이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부추겨 불필요한 권력 남용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부장은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 됐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에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친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장례식장, 신고없이 영업하면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신고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내 위생·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신규·재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시설·관리 기준, 운영 관리인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이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 및 근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가계빚, 1천130조원대 돌파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6월말 현재 1천130조5천억원으로 1분기말의 1천98조3천억원보다 32조2천억원(2.9%)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 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포괄한다. /연합뉴스

'임금피크제+신규채용' 기업에 지원금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장년근로자의 채용은 만 56세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서이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檢 '방위사업 비리' 기관 압수수색

국방과학硏·LIG넥스원 등 '현궁' 개발 관련 4~5곳

80억원대 장비 납품과정에서 불량납품·대금 부당지급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등 '현궁'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관 4~5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군 검찰관 등을 이들 기관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현궁을 도입하기 위해 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 등에서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 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의 파괴력과 제어체계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다.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온도와 진동, 충격 등 유도 무기의 파괴력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전차자동조종모듈은 전차에 장착해 자율 주행과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히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할 수 없는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납품사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자동조종모듈 11세트에 대한 계약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0%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로 정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합수단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성능평가 장비 납품 비리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간 통영함·소해함이나 해상작전헬기 등 해군을 주된 타깃으로 뒀던 합수단의 수사가 육군 관련 군수 비리 쪽으로 조준선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등 납품사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납품 비리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납품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사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뒷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미란 기자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서울시, 6개 철도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진행

서울시가 코엑스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6개 철도의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5일 영동대로 지하 통합환승시스템 구축과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35만 6200㎡ 규모의 삼성역~봉은사역 구간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제기돼 왔다.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옛 한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시작됐고, 삼성역과 동탄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확정되는 등 주변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서울시도 구체적인 개발 방안 수립에 나서게 됐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GTX, KTX 동북부 연장 등 6개 광역·도시철도가 삼성역을 지나갈 계획이다.

6개 철도를 각각 공사하면 노선 간 환승 불편과 역사 중복 설치,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 공사가 진행되면 사용하는 흙의 양만 25t 덤프트럭 24만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된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이들 6개 철도의 노선별 사업구간과 시민 안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통합 역사 건설 방안, 통합 환승 시스템 구축,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 상업·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20년 만에 새로 건립되는 울산 대왕교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해맞이광장에서 대왕암으로 연결되는 다리인 '대왕교'를 20년만에 새로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새로 건립될 대왕교의 모습. 다리 아래로 아치가 건설되는 '상로아치교'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나무·탈춤·아리랑… 가을, 축제로 물들다

처서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올 가을은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준비돼 있어 눈과 귀와 입이 모두 즐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의 대나무박람회 등 전국의 다양한 축제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았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

9월 17일~10월 31일

세계 최초로 대나무를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인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라는 컨셉으로 담양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45일간 열린다. 지난해만 150만 명이 다녀간 담양의 명소 죽녹원은 박람회 기간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재탄생 한다. 관람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할 동선 별 테라피로드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아트가 곳곳에 설치된다. 또 한옥쉼터와 성인산 정상, 죽녹원 내 8길 곳곳에 대나무 숲의 청량한 바람을 느껴볼 수 있는 풍욕 체험 등 다채로운 생태 힐링 체험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을 반길 예정이다.

또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박람회장 주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제한을 없앤 '원티켓 프리패스제'도 도입했다. 관람객들은 행사 기간 중 박람회 입장권으로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관광지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가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관광객이 많아 지면서 자연스레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담양의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강조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서 사계절 내내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처럼 시간도 쉬어가는 곳, 바람이 연주하고 숲이 노래하는 담양만의 매력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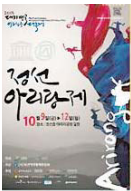
◇ 담양 먹거리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할 먹거리는 향긋한 대나무 향을 담은 대통밥과 녹을 듯 부드러운 떡갈비, 새콤하고 아삭한 죽순회다. 댓잎 아이스크림, 댓잎 찹쌀 도너츠 등 대나무를 사용한 주전부리도 놓쳐선 안될 담양의 별미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어릿광대의 꿈'

9월 25일~10월 4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열흘간 안동시 육사로 탈춤공원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어릿광대의 꿈'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생이라는 짧은 무대를 살아가는 어릿광대로 비유함으로써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선 아리랑제 '멍석아리랑' 선보여

10월 9일~12일

한글날과 주말, 정선 5일장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열리는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4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멍석아리랑'을 선보인다.

모발이식, 임상경험 따져보세요

생활 건강

매년 남·녀 탈모 인구가 급증하면서 모발이식 수요도 늘고 있다. 실제로 대한모발이식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발이식 환자 수는 무려 약 254%가 늘었다고 한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5년 전 10여 개에 불과했던 서울 강남권의 모발이식 병원은 현재 6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모발이식이 대중화되고 모발 외에 눈썹, 수염 등 모발이식의 활용범위도 넓어지면서 재수술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병원 간 과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무분별한 시술도 빈번해졌다. 이 때 예기치 못한 재수술이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모발이식 전문가인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미국모발이식전문의)을 통해 탈모환자들의 모발이식 시 주의할 사항과 병원 선택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이 원장은 "모발이식은 탈모로 인해 변한 외모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시술을 원하는 젊은 층의 탈모 환자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모발이식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시술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원장이 얘기하는 모발이식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밀도 보강'이다. 즉 한 번의 이식으로 탈모 부위가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하는 것이다. 이식하는 모발의 양은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3000모(1400모낭)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발이식은 단순히 이식 모발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배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숙련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양의 모발을 이식해도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밀도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마와 모발의 경계인 헤어라인 디자인 교정을 위해 재수술을 하기도 한다. 헤어라인 교정은 앞머리 부분이 탈모일 때 시행하는데 모발이 M자형으로 빠져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과도하게 둥근 헤어라인으로 이식할 경우 오히려 어색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앞머리 부위의 모발은 뒤쪽 모발과 달리 모발의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단일모를 선별해 이식해야 자연스럽다. 만약 이러한 고려 없이 무작정 이식을 하면 앞머리가 지나치게 풍성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재수술을 하는 환자의 10%는 지난 수술의 실패가 원인인 만큼 모발이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시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탈모 진행 상태, 모발의 굵기, 방향, 디자인 등을 협의해야 하며, 현실 가능한 결과를 예측해야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도움말 :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대표원장(미국모발이식전문의)

/최치선 기자 chisunti@

신해철 유족 "수술 후 조치 없어 사망"

의사 '의료과실' 부인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모(44) 원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속행한 변론에서 유족 측은 "망인이 위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임.

한편 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미란 기자 actor@

코스피 반등 놓고 증권가 갑론을박

바닥론 "1920선 밑돌 때마다 주식비중 확대"
신중론 "外人 매도세 지속 추가 하락 가능"

코스피가 대북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6.82포인트(0.92%) 오른 1846.63으로,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32.1포인트(5.23%) 오른 645.43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국내 증시가 중국발 충격을 딛고 7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지수가 바닥을 찍고 추가 상승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6.82포인트(0.92%) 오른 1846.63으로 마감했다.

이날 중국 증시는 나흘째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남북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중국 증시 폭락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7원 내린 1195.3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향후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수가 '지금 바닥을 쳤다'는 분석부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6일부터 장기 이동평균선(200일선)인 2010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상장사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지수 급락의 요인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거래일 연속 '팔자'를 보이면서 이달에 2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월간 기준 외국인 순매도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위험이 불거진 지난 2013년 6월(5조원) 이후 가장 많다. 이 때문에 1900선 후반이던 코스피지수는 25일 현재 1840선까지 미끄러졌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코스피 패턴은 'V'자 반등보다는 'W'자 형태의 패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추격 매도는 자제하되 현금 보유자라면 코스피가 1920선을 밑돌 때마다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대응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현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어 지수 하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번 하락장에선 아직 과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위험이 단기간에 커지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코스피는 1700선 후반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코스피가 15% 이상 하락한 시기는 미국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4번 있었다.

두 차례 하락기엔 19%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고, 나머지 두 차례 급락기에선 26% 내외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과거 하락폭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코스피는 1780과 1620이 된다.

또 코스피 하락률이 26%로 컸던 시기는 중국의 대규모 긴축과 유가가 급등한 2007년 11월, 유럽 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인 2011년이었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9배로 유럽 위기가 불거진 201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다"면서 "PBR 하단 추정치인 0.85를 반영한 코스피는 1800이 되며 기술적으로 볼 때 하락 강도는 이번 주에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코스피가 반등할 때 기술적인 낙폭과대주가 시선을 끌 것"이라며 화장품과 의류, 미디어와 교육, 건강관리 등의 업종을 낙폭과대업종으로 꼽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등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대형 가치주, 정보기술(IT), 배당주 등을 선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ELB 1종·ELS 6종 판매 NH투자증권이 26일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최대 연 8.80%의 수익이 가능한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주가연계증권(ELS) 6종을 공모한다. /NH투자증권 제공

남북 경협株 '상승'… 방위 관련株 '하락'

교류증가 기대감 주가 반영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됨에 따라 금강산 관련주와 개성공단주 등 남북 경협주가 대부분 올랐다. 반면 방위산업 관련주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상선은 전날보다 7.83% 오른 7020원에 마감됐다.

현대상선은 24일에도 남북 대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까지 오른 바 있다.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도 4.73% 올라 남북 관계 훈풍의 수혜주가 됐다.

남북 당국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향후 분야별로 교류를 늘려나가기로 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 등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좋은사람들(1.69%), 로만손(0.45%), 신원(0.63%) 등 일부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주가도 상승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재영솔루텍은 이날도 한때 20% 이상 급등하가가 전날과 같은 1715원으로 끝났다.

반면 남북 군사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크게 올랐던 빅텍(-10.38%), 스페코(-6.57%) 등 일부 방위산업 테마주는 하락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하나대투증권 '하나금융투자'로 상호변경

하나대투증권이 이름을 8년 만에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승인해 9월1일부터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외환 통합 은행이 KEB하나은행으로 통합 출범함에 따른 것이다.

/차기태 기자

환율 약세에 자동차 주가 '날개'

환율 약세에 따라 대표적 수혜주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오랜만에 날개를 달았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는 전일대비 3.51% 오른 14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기아차 주가도 전날보다 4.85% 상승한 4만7550원에 마쳤다.

현대모비스(1.8%)와 현대글로비스(1.84%) 등 현대기아차 계열사들의 주가도 올라섰다.

이날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육박하면서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중혁 신한금투 연구원은 "환율이 1200원을 육박하면서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 업종에 긍정적"이라며 "특히 기아차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2.6% 증가하는 대표적 수혜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와 글로벌 공장 가동률 향상으로 지난 3년간 이어진 현대차의 이익 감소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자동차 부품주 역시 일제히 상승했다.

대유에이텍(11.02%) 평화산업(10.42%) 등 4개 종목이 10% 넘게 올랐고 현대위아(7.12%) 영화금속(6.56%) 동원금속(6.27%) 성우하이텍(5.05%) 등도 강세를 보였다.

/김민지 기자

상해증시 또 7%대 폭락… 중국발 여진 계속

中 당국 부양책 효과 없어 미국 등 선진국도 불안

중국발 블랙먼데이(월요일에 일어난 주가 폭락) 파동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촉발한 글로벌 증시 폭락의 여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2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44.94p(7.63%) 하락한 2964.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선전 성분지수도 7.04% 하락한 10197.94로 장을 마쳤다.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뒤늦게 유동성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 또한 지난 24일 3대 지수 모두 3%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4년만에 최악의 폭락 사태를 맞았다. 다우존스 지수는 3.58% 급락한 1만5871.28을 기록해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만6000선을 하회했다.

다만 25일 오후 7시 현재 S&P 500 등 선물지수는 3%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값도 또 한번 5%대로 급락하며 배럴당 40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증시 부양책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

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증시의 낙폭을 확대시켰음은 유동성 장세의 흐름을 시사한다"며 "중국 주식시장이 IPO와 유상증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에 도달한 후 조정이 시작되었음을 유념,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위안화를 전격적으로 평가 절하한 이후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세계 주식시장은 휘청거렸다.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흥국 통화 가치와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전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8% 이상 떨어져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날 5개 주요 국내은행 자금 담당 부행장을 불러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라"고 지도했다.

이는 앞으로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향후 외화차입 여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한데다 은행의 외화 차입과 외화유동성 상황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국내은행의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20일 현재 106.4%로 당국의 지도 기준인 85%을 웃돌고 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남북간 합의에 힙입어 전날보다 16.82p(0.92%) 오른 1846.63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32.10p(5.23%) 오른 645.43,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195.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소통 프로그램 BNK런닝맨 이벤트 BNK금융그룹이 지난 22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기업문화 공유와 소통을 위해 'BNK런닝맨'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BNK금융 제공

"가계 빚 더 늘었다"… 2분기 가계신용 1130조 돌파

지난분기比 2.9%↑ 역대 최대치 기록

국내은행들이 올 2분기 가계에 빌려준 돈이 11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1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의 1098조3000억원보다 32조2000억원(2.9%) 증가한 규모로 분기 기준 증가폭으로 역대 최대치다.

같은기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07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1조7000억원(3.0%)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2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단 예금은행이 취급한 안심전환대출채권 중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 양도분 등(23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9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한 155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은 5조원 늘어난 138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자동차 할부 등을 포함한 판매신용은 59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0.9%) 증가했다.

카드회사의 판매신용은 5000억원 줄어 45조1000억원,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의 판매신용은 1조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이다.

/백아란 기자

시중은행, 고용성장 '역주행'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의 정규직 직원은 줄고 계약직 직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들의 고용 성장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3곳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정규직 직원이 줄었다.

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정규직 직원이 1만9475명으로 전년 같은기간(2만468명)보다 무려 993명이 줄었다.

신한은행은 166명이 줄었고 하나은행은 135명이 감소했다.

특히 이들 시중 은행들의 계약직 직원은 늘어났다.

국민은행은 계약직 직원이 1078명으로 전년 같은기간(946명)보다 132명이 불어났고 신한은행은 16명, 하나은행은 4명이 증가했다.

이는 이들 시중 은행들이 정규직 직원은 줄이면서 계약직 직원을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모두 늘었다.

우리은행의 정규직 직원은 1만5132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만4929명)보다 203명이 늘었고 계약직 직원은 396명으로 전년 같은기간(294명)보다 102명이 증가했다.

기업은행도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이 각각 77명과 116명이 늘었다. 기업은행은 계약직 직원이 4천14명으로 시중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은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이 각각 400명과 270명이 줄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이 줄었고 영업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스마트뱅킹으로 교통카드 충전하세요"

우리銀 '우리선불충전' 선봬

우리은행은 수수료 없이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우리선불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스마트뱅킹에 별도로 마련된 교통카드 전용메뉴를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환불이나 사용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특히 별도의 결제대행(PG)앱을 거치지 않아 충전금액의 2~6%씩 발생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교통카드 앱에서 7일 이상 걸리던 환불 업무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는 즉시 처리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캐시비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앱카드와 우리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전국호환교통카드, 일반 캐시비카드다.

전국호환교통카드와 일반 캐시비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는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듯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NFC 방식으로 충전과 환불, 사용내역 조회가 된다.

/백아란 기자

강남재건축 1만3000가구… 10년 만에 최대

저금리·규제완화에 시장 호황
삼호가든 3차·가락시영 등
입지 탄탄한 물량 대거 공급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서울 강남권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주변 생활편의시설과 입지조건이 우수한 만큼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분양물량은 총 9곳, 1만3642가구(일반분양분 2624가구)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대우건설은 다음달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751가구(일반분양 203가구)로 구성됐다. 이 곳은 잠원동, 서초동, 삼성동, 청담동 등 한강변에 위치한 전통적인 부촌이다.

이어 송파구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송파헬리오시티는 총 9510가구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635가구다.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 도보 5분거리 역세권이다. 단지 주변에 가락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삼성물산도 다음달에 서초 우성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에스티지'(총 593가구 중 일반분양분 148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오는 10월 잠원동에 반포한양을 재건축한 '반포한양자이'를 분양한다. 606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152가구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로 5분거리며, 반포한양공원이 인접해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앞다퉈 강남 재건축 분양에 뛰어든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기존에는 3분의 2이상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이상 가구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시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도록 합의한 것도 호재다. 이 합의에 따라 해당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최근 전세부족에 따른 주택 매매시장 호조 등으로 그간 많은 사업비와 값비싼 토지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던 조합들이 대거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형건설사들도 해당 사업장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추후 입주시기를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국내 첫 뉴스테이, 28일 분양

'e편한세상 도화'
연 임대료 상승률 3%
최장 8년간 거주 가능

'e편한세상 도화' 사업장 전경. /대림산업 제공

"앞으로 주택의 개념의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투자에서 거주의 편의로 변화될 것이다. 뉴스테이1호 사업인 'e편한세상 도화'가 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5일 대림산업이 개최한 'e편한세상 도화' 사업설명회에서 서홍 주택사업 전무는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지는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 5블록(뉴스테이 932가구)과 6-1블록(뉴스테이 1173가구), 6-2블록(공공임대 548가구)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총 2653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59㎡(이하 전용면적) 1097가구 ▲72㎡ 608가구 ▲84㎡ 9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 72㎡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48만원, 84㎡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인천 남구 주요 아파트들의 월 임대료(50만~100만원선)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민간업체가 중산층 이상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은 이 단지에 정부의 연간 상승률 제한선(5%)보다 낮은 연 3%를 적용했다. 84㎡의 경우 총 8년 거주 동안 월 임대료는 10만7000원, 보증금은 1261만원 상승에 그친다. 여기에 전환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이보다 더 하락할 전망이다.

최상헌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이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수준의 고품격 서비스가 제공하면서도 높지 않은 임대료에 8년간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제한이 없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 개관은 오는 28일이며, 청약신청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e편한세상 분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광교 중흥S-클래스' 청약경쟁률 최고 539.05대 1

중흥토건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오는 31일 당첨자 발표

'광교 중흥S-클래스' 조감도. /중흥토건 제공

중흥토건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에 공급한 '광교 중흥S-클래스'가 최고 539.0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4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17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만9251명이 청약해 평균 38.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은 84㎡A로 1만1507명이 몰렸다.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5개동 규모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63㎡ 2231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72~84㎡ 230실, 상업시설은 총 전용면적 4만399㎡(호수 미정)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호수를 서남쪽 방향에서 폭넓게 감싸고 있어 입지요건이 양호하다. 신분당선 연장 광교중앙역(예정)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 또 경기도 신청사(예정)와 컨벤션센터(예정), 테크노밸리 등이 인접해 있다.

추후 분양일정은 오는 31일 당첨자 발표를 시작으로 9월 5~9일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현장인 광교신도시 C2블록에 마련됐다. 입주는 오는 2019년 5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대우건설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분양

28일 견본주택 오픈
3.3㎡당 평균 880만원

대우건설은 오는 28일 위례신도시에서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6층~지상19층 규모로, 오피스텔(전용면적 19~74㎡) 434실과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434실 중 2~3룸 구조의 전용 35㎡ 이상이 96.5%를 차지하고 있다. 3.3㎡ 당 평균분양가는 880만원 대(부가가치세 별도)다.

지하철 8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송파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헌릉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강남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롯데월드, 롯데마트, 이마트,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삼성 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문정법조단지 등 기존에 있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96-13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야경투시도. /대우건설 제공

삼성물산 합병, 또 한 고비 '우선주 주총'

"우선주 주주 피해" 합병중단 신청
소통 강조한 삼성물산 '묵묵부답'

삼성물산 출범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병을 위해 넘어야 할 고비는 남아있다.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가 승인 결의를 얻을 때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잡았다. 지난 13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삼성물산을 상대로 우선주 주총에서 승인 결의를 얻을 때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합병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종류주총 개최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달 1일 합병하고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가처분 신청 접수에서 15일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은 다른 가처분 신청과 비교할 때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이 중대하고 급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공시하지 않고 우선주 주총을 소집하라는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다.

지난달 주총 직후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합병을 반대한 주주들과도 소통을 넓혀가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유가증권의 공시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우선주 주주들의 피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은 우선주 주총을 개최한 바 없다.

이에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삼성물산에 우선주 주총 소집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심문기일 당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총 전 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근소한 차이로 합병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시장과 주주들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에서 드러난다.

합병안이 통과된 지난달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종가는 각각 6만2100원, 17만9000원이었다. 25일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종가는 4만5800원, 13만4000원으로 주총날 대비 각각 26.25%, 25.14%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이하로 떨어졌다"며 "통합 삼성물산의 미래에 대해서 국내외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LG전자, 저진동·고효율로 유럽 주부 공략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센텀'
올 말 獨·佛 등서 순차 출시

LG전자는 세탁통의 진동을 줄여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소음은 줄인 유럽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센텀(CentumTM)'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탈수기능 등을 사용할 때 세탁통의 진동을 최소화하는 서스펜션(Suspension) 기술을 '센텀'에 적용했다.

이로써 세탁기의 진동이 줄어 내구성이 좋아지고, 고효율, 저소음 등 한 차원 높아진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유럽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요소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센텀'의 저진동 기술은 세탁통과 직접 연결된 다이렉트드라이브 모터(DD모터)에 부담을 덜어줘 긴 수명을 확보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적용된 DD모터를 20년간 무상 보증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전자가 DD모터를 20년간 무상 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까지 무상보증 기간은 10년이었다.

LG 센텀 드럼세탁기. /LG전자 제공

이 제품은 기존 세탁기보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다. 진동이 줄어든 만큼 모터의 힘을 손실 없이 세탁통으로 전달해 유럽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인 'A+++'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약 60% 줄였다. 또 '센텀'은 진동을 줄여 소음도 낮아졌다. 소음이 67dB로 유럽에 출시된 12kg 용량 드럼세탁기 중 최저 수준이다.

이밖에 LG전자는 강력한 물줄기를 빨랫감에 직접 분사해 세탁하는 터보워시를 적용했다. 그 결과 '센텀'은 세탁코스를 49분 만에 완료하면서 물 사용량은 터보워시를 적용하지 않은 제품보다 절반가량 줄여준다.

LG전자는 도자기 등에 사용되는 재질인 법랑을 '센텀' 전면부에 적용했다. 법랑은 흠집이 생기거나 부식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표면에 묻은 이물질도 잘 닦여 관리가 쉽다.

LG전자는 올해 말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센텀'을 출시할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hjc@

SK주식회사C&C, 대구銀 차세대시스템 구축

맞춤형 금융 서비스 실현

SK주식회사 C&C가 대구은행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구동한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인 '아이넥스피아'는 은행 통합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EDW)' 구축을 통해 은행 내 산재해 있던 고객, 금융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체제를 실현했다는 평가다.

아이넥스피아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 상품 구매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품별 가망지수 분석 모형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기상품 이탈모형 ▲고객의 수신볼륨 예측모형▲고객군별금융상품 구매 패턴을 도출해 추천상품 결정을 지원하는 모형 등을 적용했다.

대구은행은 연령, 소득잠재력, 수신 규모에 기반해 고객을 세분화하고 금융 상품 이용 성향을 분석해 고객군별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영업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형덕 SK주식회사 C&C 전략사업1본부장은 "아이넥스피아 설계 시 철저하게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자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특화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K주식회사 C&C는 이외에도 ▲정보계 포털시스템 ▲보고서 시스템 구축 ▲전사 기술 아키텍쳐·데이터 전략체계 수립 등을 진행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전자

책 읽어주는 스마트폰 개발
시각장애인 2500명에 기증

LG전자는 전날 서울시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초청해 '책 읽어주는 폰'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인 '책 읽어주는 폰' 신제품을 개발,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연말까지 시각장애인 2500명에게 순차적으로 기증한다.

이날 LG전자 임직원 봉사단은 휴대폰을 전달하고 사용법을 강의했다.

올해 기증하는 '책 읽어주는 폰'은 폴더형 스마트폰 '와인 스마트'에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사용자가 물리 버튼으로 누른 글자나 선택한 앱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와인 스마트'에 적용해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책 읽어주는 폰' 전달식에 참석한 이충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왼쪽 네 번째)과 가수 겸 배우 이동우씨(왼쪽 다섯 번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또 '책 읽어주는 폰'은 LG상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 앱을 기본 탑재했다. 시각장애인이 앱에 접속하면 인문, 교양, 과학, 예술분야 등 1만 여권의 음성도서를 청취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SK브로드밴드

10배 빠른 '기가와이파이' 출시
출력강도 강화 커버리지도 2배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대 10배 빠르고, 2배 넓은 커버리지를 갖춘 초광대역 와이파이 '기가 와이파이'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대 80㎒의 초광대역 채널본딩 기술을 활용해 무선속도 867Mbps를 제공하고 무선안테나 출력강도를 대폭 강화해 커버리지도 기존에 비해 2배 넓어졌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SK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고객의 경우 최대 10배 빠른 무선인터넷 속도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광랜 고객들도 3배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월 3300원이다. 출시를 기념해 기가 인터넷이나 Btv 프라임 상품과 함께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오는 12월 말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정문경 기자

신의 한 수 빛난 최태원의 '반도체 카드'

최 회장 "인력 투자가 기업 경영의 원천"
46조 투자 경제활성화·고용확대 '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신규 공장 준공과 46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며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M14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최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012년 최 회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강력히 밀어 붙여 SK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반도체 업계의 투자가 축소되는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시설투자를 홀로 10% 이상 대폭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최 회장의 결단이 밑바탕이 됐다.이 같은 지원 속에 지난 2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했고, 미래를 위한 M14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최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총 46조원을 투자해 M14외에 국내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구축하겠다는 미래비전을 공개했다. M14구축에는 15조원, 나머지 두 공장의 구축에는 3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공장을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에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천은 내년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하고, 청주는 올해부터 새로운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반을 미리 확충하는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5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M14 준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SK하이닉스 박성욱 대표이사 사장, 유승우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SK그룹 최태원 회장, 박근혜 대통령,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SK하이닉스 제공

이날 최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내일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우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영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 반도체 대한민국의 경쟁 우위 향상에 앞장서고,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는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른 고용창출과 경제파급 효과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M14에서 발생될 매출이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21만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M14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는 5조1000억원의 생산유발과 5만9000명의 고용창출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M14 투자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 회장과 SK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행사장을 직접 찾은 박 대통령은 "SK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을 시작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트랙스, 월 1500대 이상 판매할 것"

한국GM, 각종 안전·편의사양 탑재에도 가격은↓

"쉐보레 트랙스 디젤 모델 예상 판매량은 월 500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트랙스 가솔린 모델의 경우 월 1000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트랙스 디젤 합세로 월 1500대 판매될 것이다."

마크 코모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25일 인천시 운서동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랙스 디젤 신차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모 부사장은 국내 시장에서 디젤 모델의 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트랙스 디젤 주행모습. /한국지엠 제공

코모 부사장은 "유로6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공급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출시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 주목할 점은 유로6를 충족하는 트랙스 디젤이 출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195만~2495만원대에 책정된 트랙스 디젤의 가격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트랙스 디젤은 가장 낮은 트림의 경우 동급 소형 SUV 모델보다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자체 조사 결과 소비자의 70% 이상이 중급 이상의 트림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은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을 탑재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선다"고 말했다.

트랙스 디젤은 4기통 1.6 CDT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또한 트랙스 디젤은 1.6리터 유로6 환경 기준을 만족한다. 최고출력은 135마력, 최대토크는 32.8kg·m다. 트랙스의 복합연비는 14.7km/ℓ다. 아울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다양한 곳에 탑재된 6개의 에어백, 마이링크 등 각종 편의·안전 사양을 탑재했다.

아울러 트렁크의 최대 적재 용량은 1370ℓ다. 차체에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이 66% 이상 적용됐다.

/인천=정용기 기자 yonggi@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은 SK가 챙긴다

전역 연기장병 우선 채용

SK는 이번 남북 경색정국에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장병들에 대해 신입사원 채용시 우선적으로 뽑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SK는 남북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24일까지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에서 SK에 입사하길 원하면 소정의 채용 과정을 거쳐서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SK는 측은 "최태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이 50여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동을 받아 관련 부서에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보여 준 열정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DNA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와 기업은 이런 정신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관련당국과의 협조 등을 거쳐 이와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LG상사 임직원 모금… 인도네시아에 '사랑의 다리' 건설

LG상사는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주 스까다우군에 위치한 자사 팜농장 인근의 낡은 목조 교량 2곳을 석조 교량으로 교체 건설하고, 석조 교량 1곳을 개보수해 현지에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교량들은 현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초중고 8개교 학생들의 주요 교통로로 노후되거나 파손돼 폭우 등의 기상 상황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

유디(30)씨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돼 지역사회에 기부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다"며 "이제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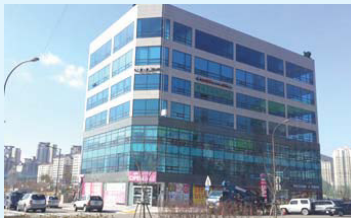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주 스까다우군에 새로 걸설된 '사랑의 다리'에서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LG상사 팜법인 직원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LG상사 제공

LG상사가 이달 완공한 새 교량들의 공사비 전액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사측은 지난 2012년부터 매칭그랜트 방식의 사내 임직원 기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도 동시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LG상사 관계자는 "이번 교량 교체 및 개보수 활동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프리미엄/수익형상가

소액투자 수익형 상가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내 상가로써 분양면적 780㎡전용면적 440㎡의 상가.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이있다. **급매가 11억** (수익률 년 7.2%) 현금3억원매수가능, 소액투자자한테 적합한상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빌딩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입구에 위치한건물 대지 340㎡ 연면적 1100㎡ 현재 보증금 2억9천, 월 1700만원 임대료발생, 전층 근생업종이 입주해있고 의정부 핵심 상권인 신세계백화점 입구에위치 유동인구 최고의 상권임. **매매가 45억원**

핫 ! 이슈

홍익대학교 임대용 빌딩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한 임대수익용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510㎡ 연면적 270㎡의 부동산이다.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급매가 72억원

종로대로변 임대용빌딩

1호선 동묘역 출구 대로변코너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 540㎡ 연면적 1800㎡의 건물로써 병원등 우량한 임차업종이 입주해있다. 현재 보증금 9억원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매매가격 95억원

강동구 임대용빌딩

강동구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10㎡ 연면적 3,300 ㎡의 건물 현재 보증금 8억원에 월 약6,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전층 병원 및 유명 프렌차이즈등이 입주해있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매물이다 .

매매가격 120억원

2호선 강남역빌딩

국내 최고 상권인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대기업등의 업무시설,어학원 및 근생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대지면적 340㎡ 연면적 2,000㎡ 근생건물이다. 현재 보증금 8억 6,000만원 월 7,8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격 150억원

논현역 대로변 빌딩

7호선 논현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으로써 대지면적 490㎡ 연면적 1,600㎡의 빌딩으로써 현재 보증금 3억2,000만원 월 3,1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

성형외과, 피부과등의 병원, 또는 사옥용으로 적합한 매물이다.

매매가격 105억원

의정부시 을지대 병원앞 빌딩

현재 최고의 지기 상승 및 미래가치가 보장된 **을지대학교 신축부지앞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써 대지면적 605㎡ 연면적 1200㎡의 임대용 건물이다.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의 임대 수익이발생. 향후 을지대학교및 부속병원이 완공될시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이 기대된다. 전층 근생업종 입주. **급매가 36억원**

길동역 , 대수선용빌딩

길동역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대지면적 720㎡ 연면적 2,200㎡의 건물 현재 보증금 5억4,000만원 월 4,000만원의 임대수익이있다 . 외벽 및 실내를 대수선 공사 완료시 보증금 7억5,000만원 , 월 5,7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된다.

매매가격 110억원

2호선 봉천역출구 사옥 및 병원용빌딩

대지면적 530 ㎡연면적 2,000 ㎡ 의 건물로써 **2호선 봉천역 출구 대로변 코너에 위치 .** 사옥, 또는 병원등에 적합한 건물이다 . 현재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임대료 3,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온다 .

매매가 80억원

문의전화 : 02)557-1027 / 010-5273-3985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프리미엄·역세권 / 빌딩·상가 매매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박세민 **문의 : 010-9000-1782**

역삼역 역세권 수익용 신축빌딩

역삼역 3분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상권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대지 520㎡, 건물 2,00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6억5,000만원, 월수익 6,400만원이 나온다. 신축건물이며 우량한 임차인구성으로 공실이 없으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매매가는 150억이다.

신논현역 메인상권 수익용 근생빌딩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메인상권 코너에 위치한 수익용 근생빌딩이다.대지 440㎡, 건물 1,600㎡, 지상6층 빌딩이며 보증금 6억4천만원에 월수익 6,500만원 정도다.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모든 임차업종이 근생으로 이루어져 공실염려가 전혀 없는 빌딩이고 매매가는 165억이다.

청량리 초역세권 대로변 급매각 빌딩

청량리역 앞 대로변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은 임대용 급매빌딩이다. 대지 420㎡, 건물 1,100㎡, 지상5층이며 보증금 5억에 월수익 2,500만원 정도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개발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빌딩이다. 매도인 사정상 급매로 진행하며 매입 후 임대관리 및 향후 신축시 수익성 및 투자가치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빌딩이고 매가는 58억이다.

역삼역 임대수익용 빌딩

역삼역 1분거리에 위치한 공실없는 임대수익용 빌딩이다. 대지 500㎡, 건물 1,250㎡, 지하1층 지상4층 근생빌딩임. 주변 프랜차이즈 식당 및 커피숍 등이 즐비한 활성화된 상권에 입지하였다. 보증금 4억 월수익 2,900만원이며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건물 상태는 최상이며 매가는 72억이다.

논현역 출구 앞 강남대로변 신축빌딩

논현역 출구 바로앞 광대로변에 위치한 수익용빌딩이다 . 대지 370㎡, 건물 2,850㎡, 지상10층이며 보증금 약14억에 월수익 8,200만원 정도이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위주로 임차가 이루어져 있으며 매가는 220억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동시에 향후 분당선 연장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희소성있는 특A급 빌딩이다.

대치동 사옥 겸 임대수익용 빌딩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사옥 및 임대용 빌딩이다. 대지 440㎡ 건물 1700㎡, 8층 건물이며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일부 사옥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학원 등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전체 임대수익용 빌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익률은 5%정도이며 매가는 110억이다.

강남역이면 구조조정 임대용 빌딩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 바로이면에 위치한 법인 구조조정 임대용빌딩이다.

대지 350㎡ 건물 2,000㎡ 지상10층 빌딩이며 현재 공실은 없으며 월수익 5200만원이고 수익률은 5.5% 정도이다. 법인 소유의 빌딩으로 사정상 주변 거래시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가는 110억이다.

고수익용 분양상가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분양상가 건물이다.분양면적 780㎡이며 현재 스크린골프업체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으로 장기임차 중에 있다. 수익률은 8%이상이다. 주변지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향후 투자가치도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

- **싼타페DM 2륜 프리미엄 13년 1월 크림색**
  완전무사고 썬루프 정품네비 45000km (매매/2600)
- **더 뉴 아반떼 LPI 흰색**
  완전무사고 15년형식 35000km (매매/1160)
- **제네시스 모던 13년 4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후카 1만km (매매/3250)
- **뉴카렌스 GX 최고급형 검정**
  완전무사고 78000km (매매/900)
- **싼타페 CM SLX고급 흰색**
  썬루프 네비 스마트버튼 완전무사고 15만km (매매/1050)
- **더 뉴 아반떼LPI 검정**
  완전무사고 15년형식 47000km (매매/1160)
- **에쿠스 380 프레스티지 검정**
  완전무사고 15년 3월 네비 뒷좌석TV 6천km (매매/8550)
- **그랜져HG 240 검정**
  완전무사고 12년 2월 네비 후카 51000km (매매/2200)
- **카니발R 9인승 12년 7월 은색**
  완전무사고 네비 자동문 VDC 6만km (매매/2040)
- **더 뉴 K9 GDI VIP 14년 11월 검정**
  완전무사고 네비 3천km (매매/6100)
- **스마트 흰색**
  완전무사고 14년 9월 2천km (매매/2330)
- **BMW 520D 12년 5월 검정**
  완전무사고 썬 네비 49000km (매매/4000)

문의 010-2727-5622

"황창규호 KT, 고객차별·비윤리경영"

참여연대 "일반고객 절반요금 납부 특혜 정황"

KT(회장 황창규)가 특정 법인고객에게 특혜성 요금감면을 하는 등의 차별 영업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5일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네트워크 업체인 A사가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원 중 절반이 넘는 9억여원을 KT로부터 감면받았다. A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절반도 안 되는 요금만 납부하는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인터넷의 3년 약정 요금은 2만5500원인데 A사는 감액을 통해 1만3500원 내외의 요금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비정상적인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황창규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일치하고, 또한 임원들의 인사고과가 매겨지는 연말, 분기말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임원들이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이자 심지어 해사 행위인 불법적인 대규모 감액 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가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사항이었던 지난 연말 해당 업체 명의로 기가인터넷을 집중 개통(148회선)했고, 그 이후 6개월만에 대부분(145회선)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등을 전액 감면했는데,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사에서 KT새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KT황창규 호의 고객차별과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혹제기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실제로 A사는 9억여원의 요금감액을 받았을 뿐아니라 신청 시 받게 되는 판매 보상금이 현재 기준 인터넷 1회선에 최소 20만원임을 감안하면 KT가 지출한 영업 관련 비용만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지수수료(요금의 7%) 등을 더하면, KT는 대규모 인터넷 회선을 A사에 제공하고도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러한 허수 판매를 통해 실적을 챙긴 해당 임원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한 차별적 요금감액이 대부분의 국민 고객, 법인 고객들을 명백하게 차별해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줬거나 실적을 부풀려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과 일부 임원이 올 1분기 실적 향상을 이유로 고액의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서울건축박람회서 홈 사물인터넷 제품 전시

LGU+

IoT 제품 8종 선보일 예정
직접 만져보며 체험 가능

LG유플러스는 오는 26~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3회 서울국제건축박람회에서 첨단 사물인터넷(IoT) 제품들을 전시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박람회의 홈IoT관에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부스를 마련하고 열림감지센서, 에너지미터, 플러그, 스위치, 맘카, 가스록, 온도조절기, 도어록 등 8종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기간 중 코엑스 내에 마련된 LG유플러스 홈IoT 시연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은 8종의 제품을 직접 만져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개인 고객은 물론, 건설회사 등 건축업계를 대상으로도 미래 주거환경의 핵심으로 떠오를 차별화한 홈IoT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류창수 LG유플러스 홈솔루션사업담당은 "향후 새로운 주택 건설 시 홈IoT가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개인 고객은 물론 건설회사 등 건축업계를 상대로 미래 주거환경의 핵심으로 떠오를 차별화한 홈IoT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美 NAC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개발 기술협약

두산중공업

특수설계·제작기술 요구돼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25일 서울사무소에서 미국 NAC사와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기(CASK)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캔트 콜 NAC 사장과 김하방 두산중공업 원자력 BG 부사장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캐스크(Cask)는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고 저장하기 위한 특수 용기다.

사용후핵연료가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운반과 보관을 위한 특수설계 및 제작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장기 저장용 캐스크에 대한 설계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없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빛 원전의 저장 용량 포화가 예상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캐스크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2024년 이후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한국형 캐스크 모델을 개발해 향후 원자력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개방형 물류 플랫폼 '헬로 스퀘어' 공개

삼성SDS

글로벌 물류 생태계 조성
IT역량 총집결한 서비스

삼성SDS(대표이사 전동수)는 25일 삼성SDS 사옥에서 개방형 물류 플랫폼인 첼로 스퀘어를 발표하고 2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첼로 스퀘어는 물류 업무에 노하우가 부족하고 IT(정보기술)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SME·Small&Medium-sized Enterprise) 화주를 위한 개방형 물류 플랫폼이다. 화주는 물류 실행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물류의 실행과 상호 협업,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서비스를 소개한 장화진 삼성SDS SL사업부 전무는 "첼로 스퀘어 출시는 그 동안 물류 솔루션 기반에서 물류 실행 력과 역량, SMAC을 기반의 최첨단 IT 역량을 적용한 플랫폼으로 확대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주와 물류 업체가 모여 자유롭게 계약이 이뤄지고 특화된 서비스를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물류 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삼성SDS타워에서 진행된 개방형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 설명회에서 샴 필라라마리 전무가 물류 관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삼성SDS 제공

첼로스퀘어는 삼성SDS의 IT 역량이 총집결된 서비스다.

샴 필라라마리(Shyam Pillalamarri) 삼성SDS 미주 연구소 전무는 서비스 내 기능 중 '리스크 모니터링'에 대해 "항공과 해운 운송을 할 때 지연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외부적 위험 요소들의 파악이 필요하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사전 후 대응이 신속해지도록 현실적인 방식이 도입된 것이 첼로 스퀘어다"라고 설명했다.

첼로 스퀘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징 중 하나는 주요 물류 업무를 한 곳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주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 화물의 출발지, 도착지, 예상운송 일정을 입력하면 전 세계 항공 및 해상 스케줄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베스트 매치' 서비스는 화주가 출·도착지, 일정 등 조건을 입력하면 고객의 선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운임과 운송 일정을 추천해주고, 예약 요청·화물 위치추적 등의 물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연재해, 사건·사고에 따른 물류 위험을 분석해 지역과 경로 별 위험 점수를 제공하고 이메일 및 모바일로 알려준다.

/정문경 기자

면세사업, 中企 '찬밥' 대기업에만 '유리'

중기 점유율 5%도 안돼
입찰자격·평가기준 등
갱신제도 대기업에 유리

내달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특허권 갱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매출 대비 0.05%, 중소·중견 기업 0.01%) 인상 등을 통해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등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운영 특허권은 기존에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됐다. 그러나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5년마다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에 신규 진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지난 7월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새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관세청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측은 현행 면세점 사업 갱신 제도의 입찰자격, 평가 기준·방식 등이 기존 사업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사업자가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려면 입찰 마감 기한 내에 최근 3년간 실적, 신청지역 매출비중, 매장으로 쓰일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4.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에게 3년간 실적이 있을리 없고, 또 특허 획득 여부도 모른 채 매장 임대계약부터 체결하는 사업자도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최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지역안배도 이뤄지지 않으며 중소기업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후보군 관계자는 "시험을 보면 점수를 공개하고 합격·불합격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번 면세점 선정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합격한 업체가 관광인프라와 지역 안배 등에서 받은 점수는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평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다고 면세점이 이미 입점해 있는 인근에 관광업계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너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사업이 5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입찰 경쟁제도로 바뀐 것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대기업 면세점 한 관계자는 "기존 상품 판매 위주에서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로 면세점 운영 계획이 확대되면서 투자비 규모는 커진 반면 사업기간은 짧아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면세점 사업은 '직매입 후 직판매' 방식으로 이뤄져 규모의 경제, 브랜드 협상력, 운영 노하우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데 사업 기간이 짧다보니 사업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잘 팔리는 아이템만 팔게 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롯데 신동빈, 국감 출석 여부 '촉각'

롯데그룹, 신 회장 출석 횟수 최소화에 집중
국감 전 지배구조 개혁 방안 구체화해 공개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 감사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경영권 분쟁과 이를 통해 밝혀진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순환출자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신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으로 9월 10~23일, 10월 1~8일 등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출석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경영권 분쟁이 이미 일단락돼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른데다 신 회장이 이미 세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호텔롯데 상장과 함께 416개 순환출자 고리 80% 연내 해소라는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혁 구상까지 밝힌 만큼 국감 출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정치권과 언론을 설득하는데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어설픈 논리로 대응했다가는 '반(反) 롯데' 후폭풍으로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말 예정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재승인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지배구조 개혁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 국감에 앞서 9월 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길 기자

시몬스, 가을 콜렉션 신제품 6종 출시

시몬스(대표 안정호)는 '달라스I (Dallas I)', '벨로III (Bello III)' 등 가을 콜렉션 신제품 프레임 6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달라스I (Dallas I)'는 원목 고유의 질감을 살렸다. 침대 헤드보드는 직선형과 곡선형 두 가지로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벨로III (Bello III)'는 '세미클래식' 스타일의 대표 제품이다.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와 곡선형 헤드보드가 어우러져 클래식함을 더하며 고급 패브릭 소재로 운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히말라얀 리미티드 파카' 2015벌 한정 판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9월 6일까지 공식 온라인 매장과 전국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히말라얀 리미티드 파카'를 2015벌 한정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1번부터 2015번까지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부여된다.

히말라얀 리미티드 파카는 고산과 극지 등 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노스페이스의 최상위 테크니컬 라인인 '써밋 시리즈(SUMMIT SERIES)'의 대표 제품이다.

국순당, 추석맞이 '차례주 빚기 교실' 운영

차례주 시음·빚기 등
'우리술 아름터'서 진행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추석 맞이 차례주 빚기 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맞이 차례주 빚기 교실은 차례주 이야기, 일본식 청주와 우리 고유 청주의 비교시음, 차례주 빚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 중 2ℓ 이상의 차례주를 직접 빚을 수 있으며 가정으로 가져가서 약 2주간의 발효를 거쳐 추석에 차례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순당 제공

이번 체험교실은 9월 12일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국순당 본사 내 '우리술 아름터'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일반인은 1만원이며 대학생은 무료이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국순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달착륙시계,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 오메가매장에서 모델들이 달에서 착용했던 시계 스피드마스터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오픈을 기념하여 선보인 '스피드마스터 57'과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다크 사이드 오브더 문'은 1969년 달 착륙 등 많은 우주 탐사미션을 함께 수행했던 최초의 시계로 '문워치'라 불린다. /뉴시스

폴란드 '위보로바' 보드카 상륙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폴란드 보드카 위보로바(WYBOROWA) 국내 첫 출시 행사를 가졌다.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동서식품,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오픈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모바일 전용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서식품의 새 모바일 홈페이지는 기존의 PC기반 웹사이트에서 제공했던 서비스와 정보를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 쉽도록 최적화한 것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작은 모바일 기기로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SPC,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24일 서울 신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제8회 SPC행복한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SPC그룹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에게 총 1억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SPC행복한장학금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SPC그룹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 매년 200명(학기당 100명)을 선발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숨37 시크릿 에센스' 리뉴얼 출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숨37 시크릿 에센스'를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더욱 깊고 강력해진 자연발효 에너지와 성분으로 보습·피부결·탄력·광채·피부톤 등의 다섯 가지 아름다운 피부의 기본 요소를 향상시켜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제품 리뉴얼 출시에 맞춰 여배우 이나영을 숨37 브랜드의 새 모델로 발탁했다.

남자 화장품 '전성시대'

메이크업 제품 다양화 등 시장 세분화·소비 증가

LG생건 '올인원' 인기 '맨 에어쿠션' 매출 껑충

LG생활건강 2015보닌 올인원.

아이오페 맨 에어쿠션.

남성화장품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구매했던 남성들이 최근 비비크림 등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소비를 확장하고 있다. 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올인원 화장품을 찾는 남성도 늘고 있다.

25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닌 올인원 화장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신장했다. 올인원 화장품은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은 복합 제품이다. 2~3 단계의 스킨케어 단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 군이다. LG생활건강은 보습은 물론 잔향이 남는 퍼퓸 스킨케어·피부톤 커버를 해주는 제품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올인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불황 속에도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의 소비 패턴 역시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편의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올인원 제품과 대용량 제품의 소비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2월 출시한 아이오페맨 에어쿠션은 출시 1년 만에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과 동시 잡티 등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손에 묻혀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해 전용 퍼프를 사용하는 쿠션 기술을 적용했다.

브랜드숍 네이처리퍼블릭은 연령별로 기능을 구분해 남성 화장품 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20대를 타깃으로 한 '아르간 옴므', 30대를 위한 기능성 프리미엄 라인 '스네일 솔루션 옴므', 영양 공급을 도와주는 '허브트리 옴므' 등 3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개편 이후 현재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남성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해외 브랜드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에스티로더 그룹 산하의 랩 시리즈는 다음 달 아시아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퓨처 레스큐 리페어 세럼'을 국내 출시한다. 랩시리즈는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세럼 종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는 다양한 기능을 찾는 남성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화장품의 카테고리 세분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성화장품 시장 규모는 1조 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신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남성 그루밍족의 뷰티 관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남성 화장품 브랜드들은 기존의 스킨·로션 수준의 제품에서 벗어나 안티에이징 에센스 등 세분화된 기능의 제품부터 보습에서 피지·모공·피부톤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멀티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열대과일맛 맛동산 '플나망고' 출시

해태제과(대표 신정훈)가 과일맛 맛동산 '플나망고'를 25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플나망고는 열대과일인 바나나와 망고를 맛동산에 접목해 탄생한 과일 맛 스낵이다. 달콤한 메이플시럽의 풍미까지 더해지면서 열대과일 스낵으로 탄생됐다.

또 맛동산 보다 크기를 가늘게 만들어 어린이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다.

'플나망고'란 제품명은 메이플시럽, 바나나, 망고 등 사용된 재료의 이름을 조합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플나망고는 바나나와 망고 두 가지 과일과 맛동산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태제과 제공

가격은 편의점 기준 85g, 1500원이다. /김수정 기자

'비비고' 2년 매출 1700억원… 냉동식품 1위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국내 출시 2주년을 맞은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냉동식품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비비고는 국내 론칭 이후 2년간 1700억원 이상의 누적매출을 달성했다. 출시 첫해 4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800억원대로 성장했다. 올해 역시 히트제품들의 성과에 힘입어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J제일제당 제공

비비고의 대표 제품들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냉동만두와 한식반찬류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6%와 36%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을 31%, 38%로 끌어올려 냉동식품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왕교자'의 성과에 힘입어 냉동만두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30%를 돌파했다. /김수정 기자

정통 독일 햄 '그릭슈바인'

삼립, 추석 선물세트 출시
파리바게뜨 매장서도 판매
5도 이하 저온숙성이 특징

삼립식품(대표 윤석춘)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그릭슈바인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햄 선물세트'를 정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새해 첫날 독일에서는 '슈바이네 학센'이라는 전통 돼지 요리를 먹으며 한 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그릭슈바인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햄 선물세트에는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에 햄과 소시지를 공급하는 그릭슈바인의 품질과 노하우를 담았다.

그릭슈바인 선물세트 1호. /삼립식품 제공

그릭슈바인프리미엄 햄은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을 적절하게 혼합해 최상의 식감과 살아있는 육즙을 느낄 수 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5°C 이하의 온도에서 24시간 저온 숙성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호주산 100% 카놀라유와함께 구성한 '복합 선물세트'를 비롯해 파리바게뜨의 대표 시그니처 와인 '도멘라파주'와 함께 구성한 와인선물세트까지 총 6종이 준비됐다.

그릭슈바인 선물세트는 SPC스퀘어 강남점과 양재역에 위치한 메쯔거라이 매장과 삼립식품 직영 온라인몰인 '브레드몰(www.breadmall.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할인점과 슈퍼마켓,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도 판매한다. 제품 문의 02-2276-5117.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아시아 국제 와인 품평회 개최

내달, 쉐라톤 인천 호텔서

쉐라톤 인천 호텔(총 지배인 리차드 수터)은 9월 아시아 와인 트로피 로드쇼의 일환으로 입상와인 시음과 함께 바비큐 디너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와인 품평회다. 국제 와인 기구인 OIV의 승인·감독 하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3회째다. 이번 로드쇼는 독일 기업 DWN(Deutsche Wein-Marketing)과 대전마케팅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송도의 이국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쉐라톤 인천 호텔의 로비바 비플랫 야외 테라스에서 바비큐 그릴 파티로 진행되며 화이트·레드·로제·스파클링 와인 등 300 여종의 시음 와인 제공된다.

/쉐라톤 인천 호텔 제공

호텔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쉐라톤 인천 호텔의 풍미 가득한 요리와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입상한 와인을 함께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행사 가격은 6만원이다.(V.A.T. 별도)

/박상길 기자 sweatsk@

'단맛'에 빠진 대한민국, 과다 섭취 주의

습관적 설탕 섭취·중독
당뇨병 등 질병 위험 ↑

지난해 여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달콤한 감자칩을 시작으로 올봄 품귀 현상까지 빚은 달달한 과일 맛 소주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단맛 열풍'이 거세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당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설탕은 우리 몸의 뛰어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설탕을 장기적,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어떤 문제를 불러올까?

◆습관적 설탕 섭취, 당뇨병·관상동맥 질환 등 발병 위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뇌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 분비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오고, 뇌는 다시 설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습관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켜 무기력증, 피로,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당뇨병과 관상동맥 질환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은 설탕이 조금 첨가된 음식만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평균 61.4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인 50g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대목동병원 건진의학과 전혜진 교수는 "적당량의 설탕은 포도당을 빠르게 올려 두뇌활동을 돕고 원기를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좋은 에너지원"이라며, "하지만 설탕 섭취가 지나치면 비만이 되기 쉽고 혈액 속에 중성지방 농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성적인 설탕 섭취, 설탕 중독 야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부터 생각나고 단 음식을 끊으면 손발이 떨리고 산만해지거나 무기력증·우울증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설탕 중독(Sugar Addiction)'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성적 설탕 섭취와 만성 음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이 점을 시사한다.

단맛은 뇌 내 쾌락 중추를 자극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세로토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잉 섭취할 경우 단맛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원정 교수는 "우울한 환자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설탕 등의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평소와는 달리 자주 단맛이 섭취하고 싶다면 혹시 우울감이 증가한 것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설탕 섭취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 중요

단맛이 나는 아이스크림·과자 등 기호식품의 주요 소비자인 유아·청소년은 성인보다 설탕 중독에 노출되기 더욱 쉽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은 성인보다 13%나 많은 69.6g이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정완 교수는 "어릴 때부터 가공식품 보다는 집에서 만든 간식과 과일을 먹게 하고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등 가정 내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목소리질환 '보톡스'로 개선

미용성형 외 다양한 효과
영구적 효과 기대는 금물

좋은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거나 신뢰를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목소리가 과도하게 허스키하거나 우는 듯 떨리고 끊긴다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이와 같이 특이한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라면 보톡스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톡스는 체내 신경 말단에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용성형뿐 아니라 요실금, 두통, 다한증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목소리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음성언어치료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목소리 질환의 보톡스 치료는 다양한 근 긴장에 의해 나타나는 음성변화를 치료할 때 매우 효과가 좋고, 수술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설명한다.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목소리 질환은 연축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들 수 있다.

연축성 발성장애는 후두신경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후두 근육들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해 나타나는 발성장애다. 극심한 경우 짧은 단어도 말하는 것이 어려워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성대근육에만 선택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보톡스 시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변성 발성장애도 마찬가지다. 변성 발성장애는 변성기를 지난 남성의 목소리가 여성스럽고 곱고, 가늘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변성 발성장애의 보톡스 시술은 여성스럽게 높은 음을 내는 성대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마비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성대와 주변근육을 과도하게 긴장해 발생하는 기능적 음성장애로 잘못된 발성습관에 의해 성대가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경련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차적으로 성대결절, 성대폴립, 성대낭종, 성대유착 등의 구조적인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질환의 정도에 따라 후두복합근에 보톡스를 주입하면 개선이 가능하다.

이처럼 보톡스 시술은 다양한 목소리 질환에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보톡스 시술은 오히려 근육의 위축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 수술은 아니지만 목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에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불어 보톡스 시술은 그 효과가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

/최치선 기자

star bag

형제로 스크린 조우

배우 **조정석**과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가 영화 '형'(가제)에서 형제로 만난다. 사기꾼 형(조정석)이 집 나간지 15년 만에 잘 나가는 유도선수 동생(도경수)에게 느닷없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성난 변호사'로 컴백

배우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성난 변호사'(감독 허종호)가 오는 10월 8일 개봉을 확정했다. 용의자만 있을 뿐 시체도 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을 맡게 된 에이스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유튜브 조회수 24억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24일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24억뷰를 돌파했다. 지난 4월 12일 유튜브 사상 최초로 23억뷰를 달성한 데 이어 4개월여 만에서 24억뷰를 돌파해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두 번째 월드투어 개최

그룹 **인피니트**가 두 번째 월드투어를 개최한다. 다음달 5일 대만 타이페이 아레나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중국, 폴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태국 등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침대 위에서'로 데뷔

신인 가수 **케이시**가 25일 정오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침대 위에서'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진다. 케이시는 실력파 남성듀오 투빅이 소속된 넥스타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신인 가수다.

영화 '퇴마: 무녀굴' **유 선**

스크린 속에서 유선(39)은 늘 강하고 억센 여성이었다. 마음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혼자 간직해야 했던 여인이었고, 딸의 안타까운 죽음에 복수를 다짐하는 엄마였다.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퇴마: 무녀굴'(감독 김휘)에서도 유선의 강한 모습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지독한 원혼에 빙의된 엄마다.

강한 캐릭터? 영화니까 도전하죠

영화에서 유선이 연기한 금주는 평소에는 딸에게 한없이 따뜻한 엄마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씌어 냉정하고 매서운 엄마가 된다. 뜻하지 않은 남편의 죽음, 그리고 서서히 찾아오는 공포 속에서 금주는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인 진명(김성균)에게 도움을 청한다.

오랜만의 복귀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출연한 적 있는 공포영화라는 점에서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것은 "호러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떤 배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코미디 혹은 액션하면 떠오르는 배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원혼에 빙의된 엄마 역할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 가슴 아픈 멜로도 하고파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문화된 배우라는 뜻에서 행복한 것이라고요. 처음 공포영화를 몇 편 할 때는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장르는 익숙할지언정 연기는 힘든 점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경험해볼 수 없는 빙의 연기, 공포의 주체가 돼 해야 하는 섬뜩한 분장, 그리고 제주도 방언 등은 이번 영화에서 유선이 마주한 도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착한 엄마와 나쁜 엄마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관객이 어떻게 볼지가 걱정이었어요. 금주가 원혼에 씌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말투와 표정, 눈빛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말 다른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관객들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했죠."

'가발' '검은 집' 등 공포영화 경험이 있는 유선이지만 그럼에도 공포를 표현하는 연기는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포의 대상이 없이 홀로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계단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기할 때는 제가 직접 타이밍을 계산해야 했어요. 제 반응에 따라 CG로 공포의 대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장은 굉장히 코믹했어요. 늦은 밤 계단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다 컷 소리가 들리면 스태프들도 웃고 저도 웃었으니까요(웃음)."

유선은 스크린에서 유독 강하고 센 캐릭터를 맡은 것에 대해 "영화에서만큼은 존재감 있고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할 수 없는 시도를 영화에서 하고 싶다는 뜻이다. 영화라면 형사나 조직 보스처럼 거친 캐릭터도 해보고 싶다. 물론 '파이란'처럼 가슴 아픈 멜로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말이다.

'퇴마: 무녀굴'을 마친 유선은 올 하반기 드라마로 다시 대중과 만날 생각이다. "이제 또 이미지를 편안하게 풀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라마에 출연하면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느끼니까요. 드라마도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일하지 않을 때는 영화 속 착한 금주처럼 누구보다도 따뜻한 엄마다. "집에만 있을 때는 촬영 현장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막상 밖에 나오니 아이와 노는 시간이 소중하고 애틋해지더라고요(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스무 살 부산영화제, 75개국 304편 상영

'亞 영화 100선' 등 특별기획 마련 아시아 거장 감독·유명 배우 방문

2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 강수연 집행위원장(왼쪽부터), 서병수 조직위원장,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올해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로 스무 살이 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75개국 총 304편의 작품으로 축제의 닻을 올린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폐막작과 상영작, 영화제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개막작으로는 인도 독립영화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모제즈 싱 감독의 데뷔작 '주바안'이 선정됐다. 폐막작으로는 중국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가 상영된다.

스무 해에 걸맞게 해외 영화인들도 영화제 기간 대거 부산을 찾는다. 허우샤오시엔, 지아장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에릭 쿠, 가와세 나오미, 고레에다 히로카즈, 바르만 고바디, 조니 토, 라브 디아즈, 왕빙 등 아시아 거장 감독들이 초청됐다. 홍콩의 탕웨이, 프랑스의 셀린 살레 등 유명 배우들도 영화제를 방문한다.

강수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0년을 함께 해온 아시아 거장 감독은 물론 미래를 같이할 신인 감독도 대거 참가해 영화제를 빛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1일 개막해 10월 10일까지 10일 동안 부산 해운대와 센텀시티, 남포동 등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오늘은 '8월의 문화가 있는 날'

광복 70주년 '서민 삶' 조명
전국서 문화예술 1800건 향연

8월의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는 광복 후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는 서민의 삶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서민이 주체가 되어 꽃피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등 약 1800여 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 서민의 멋… 한국의 소리, 춤, 민화

강원도 강릉 경포호수 야외무대에선 '서도소리-소리의 길'이, 경남 거창군 거창문화센터에선 '국악소녀 송소희와 함께하는 명품국악공연'이 열린다.

국립극장에서는 태평무, 진도북춤, 진쇠춤, 삼고무 등으로 구성된 '국립무용단 8월의 우리 춤'이 공연된다.

강원도 강릉시 부경민화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설민민화박물관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화를 주제로 한 강좌를 실시한다.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는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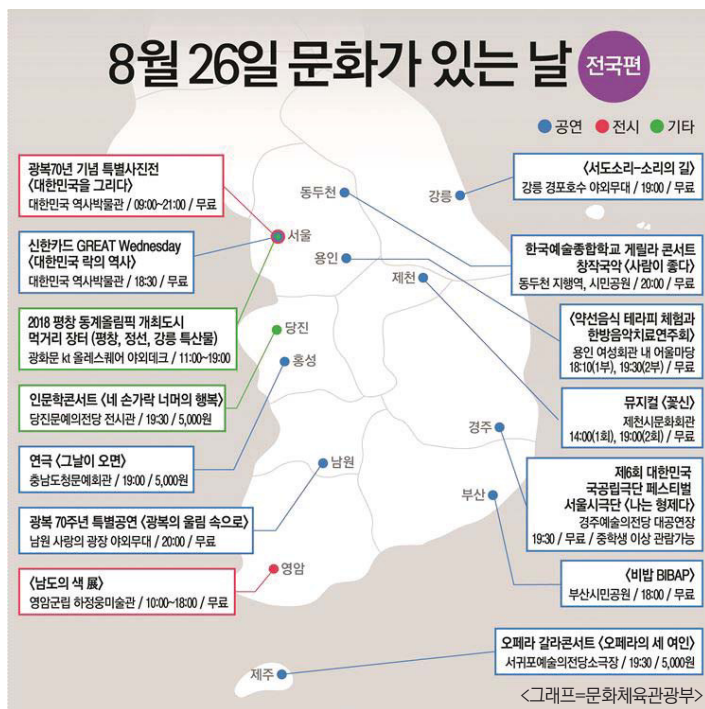
전남 고흥 남포미술관에서는 지역 예술가인 김재형 화가의 이성과 감성, 한국적 예술 및 종교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들을 소개하는 '자연·삶·신앙'이 전시된다.

◆ 서민의 삶과 공간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서울시극단의 '나는 형제다'가 개막작으로 공연된다.(18:00)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마당에서는 연극 '친정엄마', 세종문화회관 엠(M)시어터에서는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을 기념해 김성옥·손숙·주진모 등 고려대 출신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 '벚꽃동산'을 공연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가 공연된다.

LG아트센터에선 소설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한 '아리랑'을 특별할인가로 선보인다.

<그래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동대문시장, 동두천 지행역, 평택역, 안산 문화광장 등 서울·경기 지역 10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게릴라 콘서트를 실시한다.

◆ 광복 70주년 축하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는 공연 2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8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대한민국을 그리다'가 전시된다. 충북 제천시문화회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꽃신'이,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는 충남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백야 김좌진장군의 삶을 재조명하는 연극 '그날이 오면'이, 전북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의 '광복의 울림 속으로 2015'가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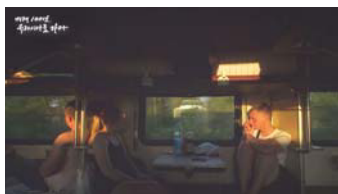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 시설과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세계경제권의 중심축, 유라시아

◆ KBS1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오후 10시

유라시아가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탑승객'에 머무느냐, 아니면 유라시아 경제권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 한·중·러·일 네 나라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철로를 따라 돌아보며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물류 협력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점검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가치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해 본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JTBC '슈가맨을 찾아서' 오후 11시

가수 김경호는 유재석이 찾은 '슈가맨'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자신의 히트곡을 15분 만에 만들었다는 말에 스튜디오의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KBS2 '내편, 남편' 오후 8시55분

네 아이를 둔 캐나다 남편 졸탄 폴 잼버씨의 특별 보양식이 공개된다. 결혼 7년차의 육아 슈퍼맨인 그는 모유수유중인 아내를 위한 특별 보양식을 만든다.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미녀와 쎄시봉' 특집으로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조정민이 출연한다. 다재다능 트로트여신 조정민은 화려한 피아노 실력으로 쎄시봉과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일(수)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6: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셈블리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재) 10:30 비정상회담 (재) 11: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0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아궁이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05:00 농업신화 06:00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재) 06:30 나를 바꾸는 30분 (재) 07:00 명현지 셰프의 한정식 07:30 열정식당 (재) 08:0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08:30 그곳에 그집 09: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9:30 명물인생 10:00 Rachael vs. Guy: Kids Cook-Off 11:00 집밥의 여왕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별별가족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12회 대관령 국제 음악제 15:55 오늘의 경제 16:05 이웃집 찰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콩다콩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여자를 울려 (재) 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 14:30 뚝?뚝! 키즈스쿨 (재)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 50 뉴스&이슈	13: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30 현장토크쇼 TAXI (재) 15:30 명단공개 (재) 16: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30 푸드필름페스티벌출품작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15:00 한식의 세계화1-밀라노 엑스포 2015 16:00 Save My Bakery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담소룡의 소림식탁 (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다문화 청소년 힐링캠프, 꿈을 쏘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2부작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50 동행 (재)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오늘부터 사랑해 20:30 생생정보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어셈블리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밤을 걷는 선비 23: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4:10 MBC 뉴스 24 24:55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용팔이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40 유자식상팔자 23:0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24:3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40 코미디 빅리그 21:40 수요미식회 23:00 내친구와 식사를 합시다 24:20 문제적 남자 (재)	18:00 야무진 공방 19:00 집밥의 여왕 20:30 BURGER FACTORY 21:00 Pizza Masters 21:30 Mystery Dinners 22:00 Chopped Canada 23:00 푸드필름페스티벌출품작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Chinese shock: Asian major stock market's steep fall

'中쇼크'에 아시아 주요 증시 대폭락

Asian major stock markets got into a shock as expected in accordance with the worries about Chinese stock market.

Under the influence of the steep decline of Chinese stock market, Taiwanese stock value dropped by 7.55% recording the biggest fall in 25 years.

The Chinese overall stock market value closed at 3209.91 on the 24th which is 8.49% lower than that of the previous day. As a result, the Chinese stock market recorded the biggest fall in 8 years.

남북 간 군사긴장과 중국발 쇼크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모니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It is expected that the cause of the drop in the Chinese stock market is the uncertainty of the sluggish economy.

Even 'Economic crisis theory in September' is brought up among economists.

In addition, some say that even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keeps coming up with stimulus packages, they are not as effective as they were expected to be since distrust in Chinese economy is huge.

Due to the fluctuation of Chinese economy and stock market, the stock markets of Japan, Taiwan, and Korea are falling together.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 쇼크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대만증시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7.55%나 급락해 2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24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49% 떨어진 3209.91에 마감했다. 이로써 중국 증시는 8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9월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아도 반짝효과에 그치고 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시장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중국경제와 증시가 동요함에 따라 국내 증시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증시가 모두 동반 추락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6	2	7		
						4		
7			8		1		6	9
	9	3	7					6
8		7		5		3		4
5					9	8	7	
3	6		4		5			8
		5						
		9	2	1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5		8	
7	1					3		
2					1	5	7	
4		9	1					
	5		8		7		3	
					4	9		5
	9	2	3					6
		6					2	7
	4		6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실연 후 마음고생… 다시 좋은 인연 만날까요?
내년 배우자감 만날 인연… 조급해 마시길

나탈 여자 87년 5월 11일 1시반

Q 일전에 선생님께서 예전 남자 친구를 잡으라고 해서 뒤늦게 잡기는 했으나 강하게 잡지를 않아서 그런지 잘 안 됐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성형수술도 실패했고 몸에 흉터만 남았습니다.

무탈하게 잘 살던 제 인생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헤어지지 않았으면 수술도 안했을텐데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나 우울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만 듭니다. 도와주세요.

87년 5월 11일 새벽 1시 반으로 여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남자 못지않은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A 합(合)에서 암합이라는 합이 있는데 그 상대가 본인의 잇속을 챙길 일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연이 되어 만났으나 당사자인 나를 또는 내가 당사자를 불편하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구조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한참을 혼자 지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싶고 그러다 만나는 사람과 뭔가 이룰 것 같은 기대감에 서두른다면 마음의 상처는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러한 합은 연인이던 동업 관계든 그 사람들끼리 모종의 이해관계와 파벌이 나타나게 되며 나중에 가서 닭 쫓던 개처럼 처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남자도 성정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탈님의 성정은 '어둠을 밝히는 달빛'의 형상에 생일지가 일귀(日貴)하여 사람됨이 순수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복록과 배우자의 덕이 두텁습니다.

태어난 날이 정화(丁火)의 아름다운 사주에서 배우자는 정관(正官)인데 포태법상 현재 장생지(長生地)에 있으며 천을귀인의 상을 갖고 있어 착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며 나이차이가 날수록 길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덕이 많다는 표현에서 천월덕의 사주이므로 예기치 않는 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년 지나면서 새롭게 단장하고 나오는 아이처럼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으니 한번 떠난 시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슬럼프가 오는 시기는 다르지만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현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6일 (음 7월 1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60년생** 천리 밖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72년생** 금전거래를 피하세요. **84년생** 인간관계를 조심 하세요.

4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61년생**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큰 법입니다. **73년생**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85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50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6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보게 됩니다. **86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51년생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구랑 의논하지 마세요. **63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75년생** 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됩니다. **87년생** 길한 하루입니다.

52년생 가고자 해도 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64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76년생**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88년생**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53년생 권력에 아랑곳하지 말고 생활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 줄 것입니다. **77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89년생**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54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66년생**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78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세요. **90년생**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55년생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67년생**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79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넘치고 즐거움도 큽니다.

56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68년생** 귀하만을 고집 하지 마세요. **80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합니다. **92년생**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8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70년생**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2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년생**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푸세요.

59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71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 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83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5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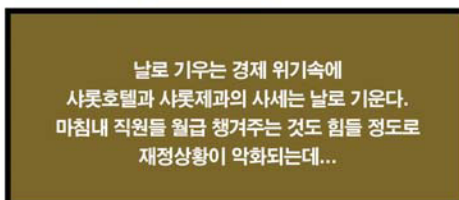
<6화 문서위조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2016 판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런... 데...

부도천국
뉴스
부도!
위기의 한국

날로 기우는 경제 위기속에 샤롯호텔과 샤롯제과의 사세는 날로 기운다. 마침내 직원들 월급 챙겨주는 것도 힘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데...

최태원식 '청년·노인 투자' 재계가 본 받아야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물론 소외된 노인부터 청년들까지 챙기는 세심한 모습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과 사회사업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저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다가 건강상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SK그룹은 남북 경색정국에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장병들을 신입사원 채용 시 우선적으로 뽑기로 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다.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이 50여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련 부서에 우선 채용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보여 준 열정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DNA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기업은 이런 정신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SK 측은 "이들이 보인 용기는 다른 어떤 자격보다도 훌륭한 스펙"이라며 "가산점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의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도 격하게 공감한다. 군대갔다오면 남는 게 없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고관대작 자제들이 즐비한 세상에 오아시스 같은 '호국보훈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 주목받을 만하다. 최 회장은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고용 디딤돌과 청년 비상 프로그램을 가동해 2016년부터 2년간 4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2만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최 회장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SK그룹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후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이 또한 획기적이다. SK측은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사에서 멀어진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다른 재벌그룹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부패한 재벌가 자손을 다룬 영화 '베테랑'이 1000만 관객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초기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기업의 창업1세대를 존경하는 사람은 많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창업2~3세대로 넘어오면서 재벌가 후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정신을 못 차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근대화 초기에 정부의 대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국가와 함께 커왔지만 크고나니 '나혼자 잘해서'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개인의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실제 추진가능한 계획 보다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내놓는 것을 보면 한심해 보이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일부 재벌가 후손들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부도덕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일삼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재벌을 논하지 않아도 떠오를 것이다.

최 회장의 진정성 어린 투자가 돋보인다. 나라에 목숨을 걸겠다는 청년과 대한민국을 이끈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대하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통큰 투자'에 박수를 보낸다. 다른 재벌기업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진심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산업부장

社說

남북한 상생의 길을 열자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마침내 큰 열매를 맺었다. 북한으로부터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당국자회담 개최와 민간교류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협상에도 합의했으니 그야말로 큰 결실이다. 남북한은 이번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이로써 그동안 온 국민의 마음을 조이게 했던 일촉즉발의 위기는 해소됐다. 이명박정부 이후 갈등해온 남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24일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모두 걱정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한껏 화난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다. 서로 최강의 무기를 동원해서 언제든지 전투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 이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전면전은 아니라도 국지적인 충돌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국민 모두가 마음 졸여야 했다. 또 남북한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이미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극도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남북한은 자제의 미덕을 발휘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박 4일 동안 끈기있게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으니 그 과정 또한 훌륭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한이 이번 합의의 정신을 살려 나가는 일이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화해협력의 큰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의 말대로 앞으로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머지 않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열릴 당국자회담 등 남북한의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진정한 평화가 이제 한반도에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조선은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닙니다

기자 수첩
이 정 필
<산업부>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비롯해 컴퓨터와 스마트폰까지 수출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국방부가 11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25일 멈췄다. 남북이 릴레이 마라톤협상 끝에 공동합의를 도출하면서 따른 조치다.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실상을 알린 보름이었다.

정부가 대북 방송에서 밝힌 전차(電車) 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양궁처럼 한국 순위가 곧 세계 순위인 조선업은 든든한 자부심이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요즘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빅 3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조선업계는 전에 없던 최첨단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며 빼저린 수업료를 지불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된 기술력은 분명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조선사에 힘이 된다.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면 초대형 해양플랜트 수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빅 3 노조를 필두로 한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다음 달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위기는 회사 경영진이 초래한 것으로 임금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논리다. 매년 하투(夏鬪) 과정에서 본 내용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사상 최악의 위기 중에 파업마저 터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전세계 메이저 발주사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

올해만큼은 노사가 한뜻으로 본업에 집중하기에도 빠듯하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이다.

조선(朝鮮)의 조선(造船)은 지금 멈출 때가 아니다.

해외 구매 사이트 '리얼크롬비' 주의보

소비자 119

카드 할부금 지급 중단 가능
현금 결제는 보상 어려워

외국 의류와 신발 구매 대행 사이트인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가 물품 배송과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구매대행업체 리얼크롬비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총 245건, 피해구제 신청이 1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 중 64.5%(158건)가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했으나 대금 환급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리얼크롬비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과 6월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환급하겠다고 한 후 주문 취소와 대금 환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업체의 대표전화는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리얼크롬비는 해당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피하고 결제는 환급 절차가 더 쉬운 신용카드 할부나 에스크로 제도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화보다 서면이나 게시판 글 등록 등 입증 자료가 확실히 남는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행정지원실장 파견 김정운 △과장급 전보 ▲종합정책과장 김병환 ▲자금시장과장 주환욱 ▲정책기획과장 김진명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현준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최남호 ▲대통령비서실 파견 김남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 전보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리 이제승 ▲예술진흥본부장 직무대리 류재수 ▲문화나눔본부장 박두현 ▲운영총괄본부장 양효석 △부장 전보 ▲정책평가부장 이윤희 ▲경영인사부장 강병주 ▲창작지원부장 양한성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장 이한신 ▲문화복지부장 강지훈 ▲문화누리부장 장용석 ▲문화예술후원센터장 김한구 ▲공연운영부장 정철
◇신한금융투자 △전보 ▲신한PWM광주센터장 김용석
◇신한은행 △본부장 승진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정민호 △부서장 이동 ▲디지털중앙금융센터장 겸 RM 김경만 ▲익산 금융센터장 겸 RM 신동봉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교학팀장 유제동
◇부산외국어대학교 ▲국고사업총괄본부장 이정배 ▲특성화사업총괄단장 정기영 ▲ACE사업단장 서상범 ▲비교과교육통합지원센터장 정명숙 ▲탄뎀융복합교육센터장 정윤철 ▲사회봉사센터장 정용각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윤갑호 ▲동남아지역원장 김동엽 ▲안전방재관 장시경 ▲대외협력팀장 주상필 ▲홍보팀장 이칠우 ▲특성화사업팀장 주영인 ▲ACE사업팀장 허영은 ▲대학원교학팀장 김진호 ▲기획평가팀장 정성현
◇한림대학교 ▲교무처장 최영재 ▲기획처장 조창익 ▲산학협력단장 김유섭 ▲사회복지대학원장 서인해 ▲국제학부학장 박노섭